

#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1, 마가복음 6:7-44, 12제자, 세례자 요한, 5,000 0명을 먹이다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7-44에 대한 세션 11입니다. 12, 세례자 요한이 5,000명을 먹이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처음 여섯 구절에서 예수께서 집에서 받으신 거절과 군중으로부터 받은 놀라움, 수용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권위, 능력과 기적, 악령 퇴치, 그리고 점점 커지는 소란에 대한 이러한 위대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의 빈약한 시작은 거부의 이유가 되고, 예수가 그런 위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믿음이나 신뢰의 부족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그 아이러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약간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6장의 다음 부분을 위한 준비입니다. 6장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지는데, 이것을 마르켄 샌드위치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 첫 번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마가복음 6장의 시작, 6절의 마지막 부분, 열두 제자의 사역에 대한 논의와 열두 제자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일을 하는 사역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세례자 요한의 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는 이 이야기에 매우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참수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의 귀환은 5,000명을 대대적으로 먹이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첫 몇 구절과 열두 사도의 사역, 제자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것이 세례 요한에 관해 일어날 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가가 세례 요한의 참수, 그의 순교에 대한 이 큰 플래시백을 하는 이유가 제자도라는 개념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열두 사도가 위임을 받고 파견될 때, 마가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제자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해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는 생각, 제자도의 모범으로 십자가를 지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8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이 시작되는 열두 사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6절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의 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악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시였습니다.

여행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도, 가방도, 허리띠에 돈도 넣지 마십시오. 샌들은 신되 여분의 튜닉은 신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곳이 너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고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일련의 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셨는데, 그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지시는 그저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지켜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 나갈 것이라는 두 번째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 전파의 전반적인 주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악령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열두 제자에게 속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주제입니다. 귀신을 행사하는 것, 귀신에 대한 권세, 질병에 대한 권세, 그리고 가르치는 권세. 그래서 여기 있는 열두 제자는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의 사역이 해온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매우 분명 합니다 .

흥미로운데 ,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 가지는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명씩 두 명씩 보낸 건, 아마도 두 증인이 무언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구약성서의 명령 개념을 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난 일의 합법성과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할 때, 그들은 또한 두 증인의 확인과 함께 보고합니다. 명령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빵도, 가방도, 허리띠에 돈도 없고, 샌들은 괜찮고, 여러분의 튜닉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시가 냉소적인 거지의 생각, 즉 거지의 가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야와 그가 가진 것, 또는 심지어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듯이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옷차림, 기본적인 공급이 있고, 그것은 신에 대한 의존성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데, 이는 실제로 광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며 신에 대한 의존성을 전달해야 했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지위나 부와 연관될 수 있는 명예의 흔적을 가지고 마을에 오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가치는 소유물이 아니라 메시지와 사역에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을 환영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곳에서 머물 곳을 환영한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은, 제 생각에는, 메시지에서 그들을 처음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업그레이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호스트가 "나한테 와서 머물러 봐. 왜 그러지 않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조금 더 좋은 빌라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명예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부를 얻을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더 수용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리셉션에 위치하고 환대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환대는 매우 중요했으며, 여전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하며,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이 미덕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편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모티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곳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어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성지로 돌아가거나 방문했거나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지로 건너갈 때 외국 땅의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환영받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이 먼지를 털어내는 아이디어는 판단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장소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환영과 구원이 있지만, 거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거부를 예상하십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주심으로써,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비슷한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당신은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설명이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우리는 14절에서 29절까지의 세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플래시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동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요한이 체포된 후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1:14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시적이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이것은 마가 복음에서 예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일한 에피소드로, 이 또한 강조나 하이라이트의 느낌을 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고난과 세례자 요한의 순교에 대한 무언가가 마가 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예수의 선구자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는 선포의 측면에서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포와 죽음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수와 예수의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헤롯의 친족과 그들의 통치의 허울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수 사건을 살펴보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가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그에게 기적의 힘이 작용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옛날의 선지자들 중 한 명과 같은 선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헤롯 자신이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를 묶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었고, 군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에게 기적의 힘이 작용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는데, 여기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통합된 설명이 있고, 그들은 그를 넣을 범주와 상자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여야 하며, 그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며 그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의 세례도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클라크 켄트와 슈퍼맨을 동시에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이 엘리야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함축이 항상 세례자 요한과 함께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그의 순교 이야기에서도, 이것과 아합과 이세벨과의 엘리야의 갈등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즉, 끌어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일부는 그들이 이것을 환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 말은,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세례 요한일 수 있을까, 아니면 세례 요한일까? 하지만 이걸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의 영, 엘리야의 영,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엘리야-엘리사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망토가 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엘리야의 임재와 관련된 것이 이제는 엘리사의 임재와 연결되어서 둘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답변에서 제가 궁금한 것 중 일부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 예수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것을 듣고 16절을 꺼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베어버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헤롯은 그녀와 결혼했다.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 했었다 .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이 음모의 한가운데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그는 지금 헤로디아스와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스는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세레자 요한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가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그는 이것이 법 안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조금 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나올 것이고, 우연히도 이 전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영역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 질문의 동기 중 일부는 아마도 당신의 의견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아마도 요한 세레자가 비슷한 진술을 했을 때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를 예수님이 받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매우 노골적인 비판가예요. 그는, 헤롯은 구약에서 금지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헤로디아는 이미, 그 아내는, 이미 요한을 반대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해요.

그러니 그녀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첫째, 그는 세례자 요한의 거룩하고 의로운 본성을 인정합니다.

그는 요한이 하는 일이 신의 설계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의 설계에 부합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빌라도에 의한 예수와 그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설교에 헤롯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고, 회개하고, 심지어 오실 분에 대해 말한 것에 당황했습니다. 헤롯과 동시에 혼란스럽고 놀란 군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놀랐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완전한 이해는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을 한 장 또는 그 정도에서 볼 것이고, 그들은 놀랐고, 당황했고, 심지어 완고해졌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 즉 세례 요한에게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는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반응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 보는 반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당을 생각해 보더라도, 손이 말라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기억한다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를 대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그와 그의 권력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나쁜 일을 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로디아와 헤롯 사이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헤로디아는 그를 죽이고 싶어하고, 헤롯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죽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1절에서 적절한 때가 왔습니다.

헤롯은 생일에 고위 관리들과 군사 지휘관들, 갈릴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자 헤롯과 그의 만찬 손님들이 기뻐했습니다. 왕은 그 소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게 청하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 나는 당신에게 내 왕국의 절반까지 줄 것입니다. 그녀는 나가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소녀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주세요.” 왕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와 만찬 손님들 때문에 그녀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그림입니다. 매우 끔찍한 그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근친상간 결혼이나 불법 결혼에 항의했고, 여기 연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붓딸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의 경향은 즐거웠던 춤, 매력, 매력적이고 음탕한 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춤에 대한 감사,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감사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로 이 거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연회가 어떤 모습인지. 춤이 있고, 성적 의미가 있고, 술이 있고, 지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조종이 있고, 기회가 있고, 이제 헤롯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얻을 기회가 있고, 인간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양심은 요한을 살려두는 것이었지만, 군중이 무슨 말을 할지, 그가 맹세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례자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부분적인 인식은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도를 기쁘게 하려는 이러한 욕망은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처형뿐만 아니라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헤로디아가 딸에게서 상으로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이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예수의 죽음을 미리 보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여론의 우려, 인간의 의도에 대한 우려, 죽음이 행해지고 제시되는 불명예로운 방식입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이 이야기를 두 개의 기록에 삽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가서 환대를 구하던 열두 제자를 보내는 기록.

그것은 그 이야기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오천 명을 먹이는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질서로 가득 찬, 방탕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살인, 거짓말, 조작 등으로 가득 찬, 안티파스 왕이 주최한 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주최하신 질서 있고, 충만하고, 풍부하고, 관대한,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연회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두 순간을 함께 보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 이야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6절, 6절 끝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여기 30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고 사도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때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이미 열두 제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생겨나고, 이런 연관성이 생겨납니다. 사도는 파견된 자, 대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맥락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가 복음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균중은 한 가지 주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놀라는 것 외에도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먹을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외딴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유형의 활동입니다. 그는 열심히 사역한 후 물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버나움에서 보낸 첫날에도, 그가 하루 종일 귀신을 치유하고 운동한 후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재충전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해왔던 것과 같은 사역을 해왔음을 알고 계셨다.

그 결과는 이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 매우 유사했고, 그들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황무지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매우 자비로운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사건의 순환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먹이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호수를 건너는 여행을 보고, 그 다음에 치유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 주기를 시작하는 5,000명의 치유의 먹이는 순간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4,000명의 먹이로 시작되는 두 번째 특정 주기를 볼 것입니다.

둘 다 호수를 건너 여행을 할 것이고, 둘 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적은 다양할 것이지만, 둘 다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 다 바리새인들과의 분쟁을 포함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마커스가 이 두 사이클이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이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구전 전통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중 하나는 숫자가 종종 바뀌지 않는 세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형태의 닷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중 하나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설명,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약간의 유사성이 있더라도요.

마크는 우리가 이런 유사점을 몇 가지 보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이 외딴 곳으로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광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메아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딴 곳에서 기적으로 먹이를 주려고 한다. 황무지에서 기적으로 먹이를 주려고 한다.

아마도 천국에서 온 만나의 탈출 사상일 겁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그들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만 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십시오. 그런 다음 33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고 모든 마을에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군중이 건너가지 않고 앞서 달릴 수 있는 해안을 따라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이 앞서 달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땅에 내려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 안내자,

종교 지도자 또는 심지어 신에 대한 은유로서 목자라는 개념은 구약성서에서 드물지 않으며 제2성전 유대교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말하고 추천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동물에게 삼켜지는 때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고찰에서 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이나 시편 80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메시아는 다윗에게서 나올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미가 5장, 스가랴 13장에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에 대한 연민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목자가 없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

그리고 그 답은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양치기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그분께 너무 달려와서 마침내 그분의 가르치는 권위에 끌리는 어떤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연민은 그가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이때가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하루의 길이가 아니라 가르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벌써 매우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주변 시골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군중을 해산시켜 그들이 어딘가로 가서 음식을 사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는 이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든 둔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그는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이 놀라운 일, 치유, 엑소시즘,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그 반환의 맥락에서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그들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당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을로 가세요. 저는 군중을 내쫓지 않을 겁니다. 마을로 가서 필요한 음식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내 번역에 따르면, 한 남자의 8개월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먹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말해. 빵이 몇 개나 있니? 그리고 그는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냈을 때, 그는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말했습니다.

5와 2 물고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에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5는 모세의 5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2는 2개의 석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항상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볼 가능성이 조금 낮지만, 이 사건 자체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푸른 잔디 위에 무리 지어 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백 명과 50명씩 그룹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순서에서, 당신은 또한, 모세의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 있고, 기적적인 먹이를 받을 것이고, 12라는 숫자가 표현될 것이고,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신의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 왕과 통치자의 관계입니다.

이 질서 있는 기록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룹으로 조직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의 푸른 풀 이미지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사항의 수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 위에 그룹으로 앉히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뿐일 겁니다.

아니면 마크가 시편 23편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합니다. 이 목양,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생각이 푸른 풀, 푸른 풀밭과 연결되어 마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것은 그저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메시아적 만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와 구원의 종말론적 도래를 생각할 때, 그것은 종종 만찬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질서 있는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연회, 그의 생일 연회와 다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질서 있는 좌석이 있고, 목양의 이미지로 가득 찬 푸른 목초지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이 다섯 개의 빵과 이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져가시니, 모두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습니다. 심지어 바구니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디어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묻는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이 기적을 본 사람, 5,000명을 먹인 사람은 물론, 여기의 숫자는 남자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 실제로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12개의 바구니는 아마도 다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회복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는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놀라움이나 경이로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군중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들이 놀랐다고 재빨리 말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는 제자들만이 광야에서 예수를 깨달았다는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 즉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7-44에 대한 세션 11입니다. 12, 세례자 요한이 5,000명을 먹이다.